

# “불자라면 누구나 성불 큰 원 세워야죠”

앞에만 나가봐도 얼마나 책이 많습니까. 불교책들이 수없이 나오는 것이 포교가 잘 된다는 증명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애야 참 책도 많고 없었어. 용성스님이 몇가지 책을 펴내 읽혔고 한자에 음만 달아 놓은 송수들이 책으로 만들어져 읽히던 시절에 비하면 요즘은 불교책의 풍년이 아닙니까. 글 모르는 사람도 없는 시대인데 이만하면 포교도 잘 된다고 봐야지요. 역경불사도 매우 잘 되고 있는데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역경은 경전의 의미만 한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의 정신마저 고스란히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역경에 능한 인재를 많이 길러야 합니다. 외국의 포교는 어

송산:사실입니다. 불교의 포교가 잘 되려면 조직이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승가는 승가대로 재가는 재가대로 일사불란한 조직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스님들 조직이 강화 되어야죠. 다시말해 법계(法階)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초심자나 노장님들이나 다 같이 여겨져야 되겠습니까. 수행의 정도와 깊이에 따라 법계를 철저히 풍수하고 그에 따른 기강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신도조직도 저급처럼 중앙에서부터 몇사람이 움직이는 체계로는 안 됩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탄탄한 조직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불교계의 조직이 새로이 정비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 가는 수행과 교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날



◇ 어린이 포교와 해외 포교에 남다른 열의를 세우고 매진해 온 석주스님과 송산스님은 철보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후 법당 앞을 거닐며 담소했다.

않으니까요. 따라서 우리 정부도 보다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체계를 갖고 항상 만약을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인을 믿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전국민의 대비태세가 필요합니다. 분단의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정신이 강조 되기 전에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이 더 큰 격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인성 바로잡는 교육을

석주:나는 그 원인을 두가지로 봐요. 잘못된 교육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외면이 그것입니다. 학교교육이 인성을 바로 하는데 치우치지 않고 출세하는 기계 만드는 쪽으로 치우친 잘못이 오늘의 사회 법외를 만든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반성도 필요해요. 전법의 현상이 넓어 질수록 사회가 평화롭고 정의로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뭔가 잘못 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아까 말한대로 불교는 보살행의 종교인데 과연 오늘의 불교는 얼마나 보살행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복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해요. 바른 복지 사업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지 않고 '나'를 비우고 보살행을 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보살행의 현장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어야 하고요.

송산:종단이 스님들의 특기를 살려서 그 특기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뭘 하든 이상에 집착하지 않고 공부를 겸한 교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스님들의 활동이 커지면 사회의 병폐도 저절로 치료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도덕 윤리적 타락은 휴전선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평화는 타락된 평화라 생각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국민의 정서마저 외국의 좋은 것을 우리 것으로 융화해 내기 보다는 좋지 못한 풍속을 너무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국민적인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고 거기에 불교가 큰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석주:그렇지요. 호국불교란 외세의 침략에 맞서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바른 정신을 이끌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실현시키는데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송산:스님 오늘 문득 찾아 와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석주:내가 할 말을 먼저 하시시군요. (두 대덕은 조실당을 나와 큰법당 앞을 거닐며 잠시 가을 풍광을 쓰이고 종종히 작별의 합장을 했다.)

진행·정리=임연태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 석주스님

“불교는 보살행의 종교이니 진정한 평화위해 나서야지요 전법현장 넓어질수록 사회 정의는 바로서야 하는데...”

떨습니까.  
송산:외국은 어렵습니다. 언어와 문자의 벽을 뛰어 넘는 것부터 서로의 습성과 사는 방식이 다른 것을 융화 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도 불법은 마음의 법이라서 조금만 마음이 열리면 쉽게 선(禪)공부에 매력을 느끼고 불법에 귀의 합니다. 여러나라에 총본부를 세웠지만 다 마음의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에 대한 희망도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석주:그렇게 잘 된 조직이 운영되면 개인의 수행뿐 아니라 대중의 수행도 훨씬 잘 되겠지요. 그래야 불교도 바로 서고 좋은 세상도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송산:스님께서 성불이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시대 중생들은 정말 성불의 큰 원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중생이나 다 그렇겠지만 성불의 서원이 절실하기는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禪)에서야 견성을 하면 거기서 다 끝난다고 하지만 그런 경지에 이르기엔 발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석주:교학적 입장에서선 견성이 곧 성불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견성을 했어도 3아승지계를 더 닦아야 성불을 한다고 하거든요. 더 닦는다는 것은 곧 보살행인데 이 세상은 그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송산:그렇게 해서 온 중생이 평상심을 누리게 되면 일체의 성불이 가능해 지겠지요. 평상심이란 '나'라는 것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없는 곳의 모든일이 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 내가 있다고 나를 내세우니까 모든 일에 꼬달려 집착을 낳고 중생계를 벗어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주는 그 자체가 진리인데 그 속에 살며 진리를 모르는 것도 나를 내세우는 탓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 속에서도 속세에서는 모든 것을 실체로 받아

들이게 됩니다. 진리를 진리 그대로 받아들여 실체를 벗어난 것이 실상의 세계이며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실용의 세계를 펼 수 있는데 바로 이 실용의 세계를 펴는 것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보살행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수용하되 혼자만 소승이고 대중에 회향하면 대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진리로 남을 이롭게 하면 보살의 세계가 이뤄지는 것을 모두 명심해야죠.

석주:생각이 현재를 낳고 고통을 낳는 것이니 그걸 잘라내고 진리의 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노력이 모든 불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수행에도 여러 방편이 있고 계율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계율을 벗어나서 이룰 수 있는 도란 있을 수 없지만 그 계율에 집착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거든요. 계율에 집착하면 그 본래의 뜻마저 잃어버리기 쉬우니까요.

송산:그렇습니다. 계율의 문제를 두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절대불변의 진리 그 자체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걸 바껴야 한다는니 어쩌니 하기에 앞서 그 본래의 의미를 잘 알고 공부의 바탕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수행자가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나 한 수행자가 건너편의 여자를 업어 건네 주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다른 수행자가 “자네는 계율을 어겼으니 함께 갈 수 없네”라고 하자 “자네는 아직도 그 여자를 업고 있구먼”이라 답해서 깨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율이라는 것도 잘못 알면 집착이 된다는 가르침이 아닐까요. 시대가 변해도 그 시대마다 불교의 자체가 오롯이 서있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송산스님

불법은 마음의 범입니다  
외국사람도 마음이 열리면 언어·문자의 장벽 뛰어넘어 쉽게 불법에 귀의 합니다

석주:우리나라의 불교도 그런 면에서는 반성해야 할 것이 많아요. 일제때도 육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철저히 안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각자의 노력과 정진력에 달린 것이 계율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허용한다 안한다 하는 제도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나는 승가의 육식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 법계 구별 엄격해야

송산:외제개혁을 두고 요즘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승단의 복식은 매우 정확한 구별을 가졌었지요. 아까 얘기한 법계의 구별이 옳으로 매우 엄격히 구분 되었던 것인데 우리도 우리의 전통이 있으므로 그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통을 지키는 일 만큼이나 시대의 발전에 따라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새는 정보화 시대라서 정보교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것도 우리불교의 자세를 다지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 무심스님의 경우 밤에서 컴퓨터로 세계에 퍼져 있는 흥

법원과 의견을 나누고 지시사항을 전하고 그쪽의 일들을 전해 듣기도 합니다. 불교계도 이런 장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이미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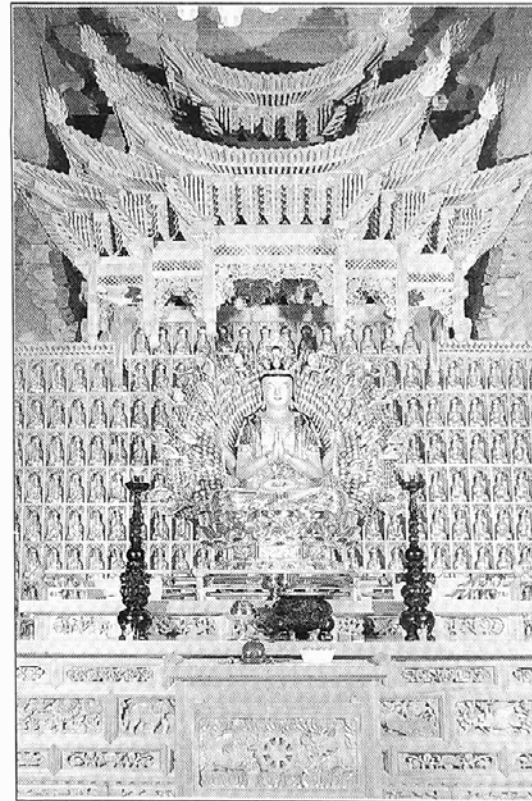
석주:컴퓨터야 포교하기에 써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앞으로는 불교의 세계화가 컴퓨터 포교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컴퓨터를 통해 뭔가를 알리려고만 해서 안되고 그걸 통해 세계인이 뭘 요구하는가를 알아서 만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 역시 컴퓨터 불교가 할 일이지요. 올 가을은 북한의 무장공비 때문에 매우 걱정스러운데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송산:제가 보기에 북한은 현재 스스로 혼돈의 지경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공산당의 입장과 군사력을 장악한 실력과 그리고 페밀리 파위의 갈등이 뒤범벅이 되어 있다는 견해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뿐입니다. 저렇게 군사도발을 하는 일이 어제오늘 저질러진 것도 아니고 하루이틀에 끝날 것 같지도

##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명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업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전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 사 무 실 (02) 738-8447~8
- 공 장 (051) 804-8907
-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